

삼성, 서울대와 OLED 원천기술 공동개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서울대학교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대표 조수인)와 공동으로 교내에 OLED 연구센터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2월9일 연구센터 개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소식과 현판식을 열었다.

OLED 연구센터는 풍부한 연구경험과 우수한 인력을 토대로 협동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대 연구팀은 OLED의 재료와 공정, 소자 등 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기컴퓨터공학부, 화학부, 재료공학부 소속 교수진으로 구성됐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AM-OLED를 최초로 개발했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2/10>